

## ‘벤처넷’ 벤처인증 업무 온라인화



협회는 벤처넷(www.venturenet.or.kr)의 벤처인증 업무를 9월 1일부터 온라인화하여 본격 가동했다.

시스템 개편으로 벤처인증 업무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화함에 따라 기존 혁신능력 자가진단 평가를 오프라인 작성 후 벤처인증 신청서 작성 시 첨부하여 송부하는 등의 불편함을 없앴다. 따라서 인증 평가 업무 또한 일괄 온라인 처리로 변경되었다.

벤처기업인증 재발급신청은 벤처넷 로그인 후 온라인상에서 간단히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벤처의 일반벤처 전환은 경영실태조사 작성 후 전환 신청만 하면된다. 벤처넷은 협회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는 벤처기업지원 포털사이트로 벤처인증 업무뿐 아니라 혁신능력

평가, 창업적성검사 등 벤처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벤처넷 콜센터 박혜연 (02-6009-4200, E-mail : callcenter@venturenet.or.kr)

## ‘벤처코리아2004’ 참가등록 시작



협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하는 ‘벤처코리아2004’의 참가등록을 오는 9월 10일까지 웹사이트(www.venturekorea.org)를 통해 공식 접수한다. 이번 대회는, 벤처기업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벤처기업들의 국내외 비즈니스를 지원할 각종 비즈니스 프로그램, 벤처산업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토의할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은 물론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유럽 등으로 대폭 확대되며 지역별 대형 IT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국내 벤처기업과의 개별상담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전력, SK텔레콤, LG상사, KT 등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식 접수 기간 내 참가신청을 하면 참가비 할인혜택과 함께 각종 ‘비즈니스 상담회’에 개별미팅을 위한 사전매칭이 가능하다. 해외 한인기업 및 지방소재 벤처인들에 대해서는 참가비가 면제된다.

문의 : 벤처코리아 2004 사무국 (02-6009-4200, 내선 119, E-mail : vk2004@kova.or.kr)